

설날 풍경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지난 설날 아침 눈이 펄펄 내렸다. 결혼해 다른 지역에 가정을 꾸린 아들이 제 식구를 데리고 설 전날 집에 왔다가 눈에 막혀 하룻밤 머물렀다. 자고 일어나니 사위는 어두운데 거실 창밖 세상이 온통 하얗다. 겨우내 푸르던 대나무 숲이 파리도 하얀 옷을 입고, 뱃나무도 하얀 꽃을 피웠다. 늘 하늘을 가리고 있던 큰 키의 가문비나무도 하얀빛에 가려져 실루엣만 남아있다. 추위 얼었는지 새들도 조용하다. 하늘은 희색빛, 진한 먹물로 농담을 달리해 하얀 눈을 표현한 듯 고즈넉하니, 동양화 한 폭이다.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설날 떡국상을 차리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거실 가운데 방의 방문이 가만 열리더니, 잘 자고 일어난 듯 뺨이 얼얼한 두 살배기 손녀가 혼자 조용히 걸어 나온다. 문 열고 나오다가 어린 손녀도 그 하얀 세상을 만났다. 세상에! 큰 눈이 더 커졌다. 그대로 얼음이 되어 한참 말이 없더니, 마침내 손가락 뺨에 거실 건너편 창 넘어 세상을 가리키며, “눈?”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어떻게 알았어?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다. 아, 나는 설날 아침에 나의 어린 손녀와 오롯이 한 공간에서 천지에 눈 내리는 광경을 서로 눈짓과 손짓으로 나누어 가진 것이다.

나에게는 설날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이 없다. 대신 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 오빠들과 언니가 살던 장성 남면으로 설날에 세배를 드리러 가곤 했다. 삼태리 마을 입구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가집 삼간에 사셨던 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먼저 둘러 인사를 드렸다. 수염을 기르시고 한복 조끼와 고쟁이를 입고 아랫목에 앉아 계시던 작은 할아버지는 묵직한 분이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단지 긴 머리를 곱게 쪽진 작은 할머니에게 눈짓을 하면, 할머니께서 설강 위에 혹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은밀하게 우리에게 내어 주시곤 했다. 껏감이기도

했고, 이웃 젊은 친척이 집에서 만들어 보내온 것을 안 드시고 아껴두신 것이 분명한, 하얀 튀밥이 붙어 있는 노란 누룽지 색깔의 산자 몇 장이기도 했다.

그 시절 설날은 어찌나 추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큰집은 반듯하게 기와를 얹은 황토집이었고, 부지런한 큰 울케 덕에 아랫목은 장판이 진한 고동색으로 늘어붙을 정도로 뜨거웠다. 큰 가마솥을 얹어 놓은 아궁이에 장작이나 짚을 태워 밥하고 국 끓이면 그 열로 온돌방은 한 저녁을 버텼다. 광주 시누이 왔다고 반가워 하시며 낮에도 더 군불을 넣어 주셨다. 사촌 언니랑 웅기종기 이불 밑에서 만화책 보며 방안 한 가운데 놓인 화롯불에 고무마를 구워 먹었다. 설날 아침에 엄마가 사주신 새 옷 입고, 동네 친척 어른들 집으로 돌아다니며 세배하고 한 상 받아 먹는 재미가 있었다. 광주에서 왔다고, 모두들 칭찬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설날을 보냈다. 후덕한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무던한 나도 며느리는 며느리라. 설날은 좀 고단했다. 모인 많은 식구들 먹을 음식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그 다음 식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랑 나누는 대화도 음식에 국한됐다.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사 와서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이 먹고 싶다. 너는 무엇을 잘하더라. 어머니 이제 무엇을 차릴까요. 무엇이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세며느리가 모이고, 아들 셋이 모여서 웃놀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세며느리는 한마음이 되어 어머니 흥도 잠깐 보곤 했다. 아랫목에 앉아서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시는 어머니가 위대해 보였고,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았다. 부모님 휘하 3남 3녀가 모두 돌만 낳아 잘 키우자 세대로서 충실해 각 가정에 두 아이씩 낳았고, 혹은 셋도 됐다. 그 식구가 다 모이면 한 부대는 됐다. 그 부대가 한 자리에 모여 하는 우리 가족만의 설날 행사가 있었다.

설날 아침에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한 살 더 먹었으니, 3대(代)가 모두 모여 새해

계획은 무엇인지 발표하는 것이다. 각자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 하나씩 가져와 제비뽑기를 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을 내놓았다. 아버님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선물을 가지신 후 말씀을 하시고, 다음 화자를 지목한다. 그 화자가 또 제비를 뽑아 선물을 가지고, 새해 계획을 말한다. 사회는 손자 손녀가 보도록 했다. 학교를 다니는 손자 손녀들의 새해 계획을 듣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주었다. 아버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발표하셨고,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이렇게 설날을 기억한다. 어릴 적에는 친척들의 따뜻한 환대를 맛보았다.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두둑한 세뱃돈의 질감을 사랑의 크기로 여기며 만족했다. 내 살림을 차렸을 때는 내 아이들의 세뱃돈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도록 아침의 고단한 기상을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다니는 아들이들 속을 썩여도, 설날이면 꼭 만났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르침이 있으니, 일가 친척들의 염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버텼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시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가족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핵가족에서 핵사람의 시대다. 연애도 선택, 결혼도 선택인 시대다. 설날에 가족이 모이는 것도 선택의 시대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손녀와 꼭 설날에 만나고 싶다. 또 우리 가족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바란다. 세배하면서 서로의 안녕을 묻고, 한 해의 계획을 들으며, 서로를 위해 기원해 주는 그런 시대에 머물길 바란다. 아니, 이번 설날처럼 하룻밤 같이 자고, 한 공간에서 눈이 펄펄 내리 온통 하얀 설날 아침 풍경을 같이 바라보고, 눈빛으로 놀라움과 반가움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나눔에 나눔



김동수의 나눔톡톡

혈액 수급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긴 설 연휴와 연이은 폭설, 한파로 인해 헌혈참여자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일 적혈구 적정보유량 5일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방학으로 헌혈자 수가 적은 시기에 전혈에서 분리하는 농축혈소판(PLT) 수급은 적혈구보다 보관기간이 짧아서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전혈 분리 농축혈소판에 비해 6배 가까운 용량을 채혈하는 백혈구 제거 성분채혈 혈소판(A-PLT) 헌혈을 권장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헌혈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다수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까닭에 일일 농축혈소판 보유량은 대개 1-2일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환자가 죽은 간병 뿐만 아니라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철 헌혈 참여는 더 소중하며 특별하다. “한 번의 헌혈로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표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혈을 말하는 것으로 적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분리되어 세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혈이 부족한 동절기에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성분 혈장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도 전혈이나 성분 혈소판 헌혈에 동참해주어야 한다.

아직 대체할 수 없는 헌혈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다.

대한민국 헌혈공모전 수기에서 “아이가 수술과 항암을 하면서 받게 된

혈액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과 돈...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아이의 어머니는 헌혈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헌혈은 살아있는 세포를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생명 나눔은 물론 헌혈 기부권을 통해 나눔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혈 기부권은 또 하나의 나눔이다. 헌혈자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기부금으로 이듬해 장학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지난해 연간 34만여 명이 기념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부권을 선택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쉽지 않은 이 선택으로 조성된 13억 8천여 만원의 기부금은 올해도 수많은 힘든 이웃에게 전달될 것이다.

또한 헌혈은 이 기부권에 또 헌혈증 기부까지 나눔에 나눔을 더 할 수 있다.

이 헌혈증 기부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또 한 번의 나눔이 된다.

여기에 헌혈증만 제시해도 유람선 이용료, 커피나 음식값을 할인하는 가게, 아예 치킨이나 사진 촬영 등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기부하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헌혈을 통한 나눔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헌혈은 기부와 봉사를 포함하는 나눔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헌혈은 (봉사) 시간을 내어 혈액을 기부하고 기부권이나 헌혈증을 통해 기부하는 나눔으로 구성된 종합선물 세트와 같다.

울겨울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세트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은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전일보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